

朝鮮朝 規範類에 나타난 家庭規範教育의 內容과 特徵*

Contents and characteristic of family norm education appeared
in chosun Dynasty

성신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길표

dept. of Home Management Sung shin Woman's Univ.

Professor: Lee, Kil Pyo.

〈목 차〉

- | | |
|-----------------|------------------------------------|
| I. 서론 | IV. 규범서에 나타난 가정규범교육의
내용과 현대적 의미 |
| II. 가정규범교육의 필요성 | V. 결 론 |
| III. 가정규범교육의 분제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reorganizing clue for our decolorrizing domestic norm education trachg from chosun Dynasty.

The study examined recent research for the necess and problems of family norm education and analized contents and traits of family education dunny chosun dynasty appeared in documents.

The results: countesy is practiced in the field of eating, clothing, language, greetrings and manners, emphasized on respecting others and orders should be kept by acknowledging living rules.

This family education in traditional society is also meaningful in modern sense, so we have to follow the suit on the basis the tradition.

* 본 연구는 성신여대 운정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론

1. 연구목적

오늘날 우리는 가치관과 생활규범의 혼란속에서 살고 있다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사회는 예로부터 무교와 도교, 불교, 유교의 영향을 받아왔으나, 그중에서도 조선조 사회에서의 유교는 무속과 불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상생활의 질서와 사회생활의 질서를 제시하여 한국인의 생활의식 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당시의 생활규범과 질서는 우리사회를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을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될 소중한 가치규범이 되어왔다. 그러나 조선조 사회가 근대, 개화기를 거치면서 서구문화, 기독교의 현실주의적 생활철학 등이 널리 확산 되었으며, 일제침략기의 일본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고유의 생활규범과 질서는 점차 그 의미를 상실했다.

規範이란 社會秩序를 維持하기 위한 행위의 규칙, 기준 또는 양식이며,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통제(변시민, 1982)를 의미한다. 이러한 規範은 社會의 價値體系를 내재화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家庭에서의 規範은 한 개인이 成長하여 社會秩序를 維持하고 제구실을 다하면서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앞서 지적했던 사회변화에 따라 傳統社會에서의 規範이 붕괴되면서 예로부터 가정에서 가르쳐왔던 가정규범교육도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대와 같은 國際社會는 國際間으로 文化的 교류가 빈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文化的 국제간 통합은 物質文化, 精神文化 어느면에서도 아무도 원치 않는다. 個人, 家庭, 民族 모두가 자체적 文化를 긍지로 하려하므로 우리는 우리 자체의 傳統的인 物質文化 精神文化에 대한 認識을 저변으로 삼고 현재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처방전의 자세가 절실하다.(윤서석, 1994)

그러므로 우리의 家庭과 社會가 國際化時代 속에서도 올바른 傳統性을 지닌 모습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傳統家庭生活에서의 家庭規範教育의 중요성과 그 내용을 재분하여,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퇴색되어가는 우리의 家庭規範教育을 재정립해 나가는 실마리를 조선조 규범서를 통해서 찾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규범교육의 필요성과 오늘날 家庭規範教育의 문제점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본다.

둘째, 조선조 규범서에 나타난 家庭規範教育의 내용과 특징을 文獻考察하여, 그 現代的인 價値를 論議하고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생활지도의 가르침을 찾아본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家庭規範教育과 관련된 최근의 研究論文 및 朝鮮朝의 규범서인 고문헌의 고찰과 내용분석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朝鮮朝의 規範書는 조선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발간된 女性, 男性, 아동의 생활교육 지침서로 활용이 되었던 서적들을 발췌하여 살펴보았다. 規範書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생활교육차원으로 읽혀왔던 교육서로 그 내용은 당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家庭教育內容이었다.

規範教育內容은 食生活規範, 衣生活規範, 언어와 인사규범, 몸가짐에 대한 규범으로 나누어 그 특징적인 면을 알아보았다. 한편 규범서의 내용은 원문을 가급적 인용하고자 하였다.

내용분석에 활용된 규범서는 다음과 같다.

昭惠王后의 「內訓」, 李德懋의 「士小節」, 鄭經世의 「養正篇」, 「禮記」, 송우암의 「戒女書」, 이이의 「격몽요결」, 「小學」, 「論語」, 이황 「규동요람」 등이다. 그리고 이외에 예로부터 각 가정에서 지켜온 가훈에서의 내용도 발췌, 인용하였다.

II. 가정규범교육의 필요성

朝鮮朝이후 우리의 傳統的 家庭生活規範은 儒教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모든 價値規範의 기준이 되어왔다. 傳統社會의 이러한 價値規範은 당시 뿐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社會構造의 변천과 더불어 文化 및 規範은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C 말 문호개방이후 싹트기 시작한 근대화 과정에서 西歐 文化의 도입은 과학기술의 발전,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초래하여 社會의 급격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왔고 家庭에서는 家口 형태의 변화, 가족들의 생활변화, 가족성원의 인간관계와 가치관에 까지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가족성원간의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社會, 經濟, 文化의 변화에 따라 우리 固有의 生活樣式과 傳統的인 意識構造는 약화되고 새로운 生活樣式과 價値意識이 나타나면서 家庭에서의 規範教育도 전통생활속에서 질서있게 이루어지던 것이 現代社會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家庭規範에 혼란을 가져왔다.

인간은 가정에서 가족들간의 관계를 통하여 터득한 秩序意識과 規範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맺어가게 된다. 즉, 인간은 社會를 알기 이전에 가정에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기초적인 훈육을 받고 도덕성이나 규범의식을 갖게 되므로 가정에서의 規範教育을 社會의 타집단이나 기관에서의 교육보다도 그 중요성이 앞선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자녀간의 대화에 쓰이는 말씨, 호칭, 행동등은 가족이외의 타인과의 유대를 맺을 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사의 방법이나 食生活, 衣生活 禮節등도 어려서 부터 家庭에서 몸에 익힌 바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이 되어서 새롭게 배워 고치려해도 마음대로 잘 되지 못하는 것도 어렸을때의 規範教育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祖父母, 父母, 일가친

척, 형제들이 어울려사는 大家族生活에서 자연스럽게 가정규범을 배우고 몸에 익히는 生活文化속에서 살아왔다. 따라서 한국인의 行動規範은 첫째 혈연, 둘째는 지연으로 제약되므로(변시민, 1982) 가족공동체내에서 가족들은 위로부터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倫理實踐의 본분이 있었다.

傳統社會는 종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가족내에서도 위계성을 강조하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웠고, 오히려 웃어른의 권위에 따라 복종하는 삶의 방식을 몸에 익히도록 해왔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그러나 現代的 견지에서 보더라도 家族의 秩序나 規範은 단순히 수평적인 家族關係를 지향하는 것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의 도시화, 핵가족화, 규범의식의 부재등은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고부관계등 가족관계내에서의 복잡다기한 생활문제를 발생시켰으며 가정은 어떤 시기보다도 그 안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88년 국제학술올림픽이 국내에서 개최될 때, 후기 산업화사회에서의 가족공동체, 그 모델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후, 제시되었던 바는 서구적인 平等主義 意識과, 家族의 位階秩序를 강조하며, 가족원의 말은바 구실을 지켜나가는 동아시아 가족의 모범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바로 가정의 規範教育을 강조하고, 가정이 생활의 질서와 社會倫理를 다잡는 기초적인 구실을 담당할때 미래의 바람직한 家庭生活모델이 제시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規範教育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가장 基礎的인 교육이며, 사회인으로서 바람직한 規範秩序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도록 하는 實踐教育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III. 가정규범교육의 문제

오늘날 가정규범교육의 문제는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수용과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로 인하여 직업활동에 부모를 빼앗기다시피한 가정의 부친부재 모

친부재현상, 자녀에 대한 절제없는 교육, 생활교육을 등한시한 부모와 학교의 지식 위주의 교육, 과열경쟁, 메스컴의 잘못된 영향등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現代 産業化 社會의 한 측면은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을 추구하며 自由競爭하는 특징을 보인다. 現代人들은 社會의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 집단과 관계를 맺고 스스로가 앞길을 개척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人間의 價値觀은 불안정하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갈등과 시련을 겪게 되는데 특히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는 오늘날의 社會가 教育的인 環境을 제공하지 못하고 無批判的인 外來文化의 수용으로 韓國의 精神文化를 침해하여 價値觀 형성에 혼란을 주고 있다.

家庭에서는 父母 또는 家族構成員이 社會生活에 많은 시간을 빼앗김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家庭生活에서 뚜렷한 價値觀이나 規範은 세우기가 힘들고 따라서 청소년들의 非行化의 원인과 그릇된 價値觀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父母世代의 文化的 背景과 자녀들에게 당면해 있는 현실 사이의 격차로 가정의 禮儀凡節이나 道德 등의 기준이 불명확하게 되었으며 이는 父母와 子女世代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같은 내용들을 밑받침해 줄 수 있는 일련의 연구들을 근거로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子女들의 價値觀 問題에 대한 한 조사에 의하면(강대열, 1985. 33-41) 家庭이란 곳을 청소년들은 가족과 더불어 애정을 주고 받는 곳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바람직한 아버지 像은 따뜻한 애정을 베풀어주는 아버지로서, 권위와 위엄보다는 대화와 이해 그리고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다. 또한 바람직한 어머니 像으로는 집안일을 알뜰하게 보살피는 어머니가 대부분 차지하며(94.6%) 傳統的인 價値意識이 뿌리박혀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스승관에 있어서 학생과 자주 접촉하여 가정이나 일신상의 문제에 대하여 상담해주는 선생님이 으뜸으로 현대의 靑少年들에게는 형식이나 권위, 엄격함 보다는 사랑과 人間的으로 대해주는 어른을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

었다.

본인들이 막상 婚姻하여 子女를 낳으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民主形으로 키우겠다는 경우가 男學生이 70.3%, 女學生이 85.9%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조춘국, 1987. 42-45)

이와같은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理想的인 家庭觀과 人間關係를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청소년의 禮節教育에 관한 연구에서는(김정애, 1992. 37-41) 부모 이외 기타 가족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할아버지가 계신 경우에 학생의 傳統 禮節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족, 친척간의 예절과 식사예절, 婚·喪·祭禮 면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나 現代社會에서 傳統的인 價値意識이 점차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家父長中心의 사고방식과 높은 가문의식을 가진 할아버지의 존재가 자녀에게는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이같은 설명을 지지해주는 것이 같은 연구에서 할머니의 有無에 따른 傳統禮節에 대한 지식과 태도면에서 전반적으로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가정에서의 傳統的인 禮節教育은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큼을 의미한다.

그러나 都市化, 核家族化의 경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理想的인 家族關係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 예컨대 직업을 가진 어머니와 자녀관계를 생각해보면 現代의 男女平等思想과 더불어 여성들의 高等教育이 보편화하였고, 경제구조가 여성에게도 많은 직장을 제공함으로써 기혼여성들의 직장 진출이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녀들이 기대하는 어머니로서의 家庭에서의 역할과 태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어머니의 직장생활은 자녀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 자녀들과 精神的인 價値意識의 差를 좁히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실제 조사(서동인, 1991. 78-88)에서 어머니의 취업의 단점으로 60% 이상의 학생이 어머니가 안계셔서 싫거나 어머니의 고단한 모습을 들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 두길 원하는 비율이 58.6%로 나타났다.

오늘날 맞벌이 家庭에서 대부분 어머니들은 家庭

에서의 生活教育은 물론이거니와 시간이 없어 자녀의 학습지도를 못해주는 경우가 대부분(54.0%)으로 가정내에서 부모로부터 生活教育의 기회는 더 적어지는 것이다.

또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김형배, 1986, 55-77) 자녀가 부모에게서 느끼는 불만 중에는 기대가 너무 크고(37.3%), 공부에 대해 중용(26.6%)하며, 지나치게 간섭(23%)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즐거워할 때는 집에 있을때(24.3%) 보다는 친구와 있을 때(49%)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흡연 비율이 20-60%였으며 현재 자신의 고민으로는 진학문제(63%)가 가장 컸다. 이와 비슷하게 학생들의 생활 경험에 관한 다른 연구(김치경, 1980, 102-104)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흡연(66.5%)과 음주(66.8%)의 경험이 있고 이를 친구집단을 통해 배운 바가 가장 많았다(45.4%). 그리고 학생들이 안고 있는 고민 중 가장 큰 문제는 진학문제(1504명 중 434명), 이를 의논함에 있어 그 상담자는 역시 친구였다(752명 중 396명 응답). 이와같은 연구결과에서 現 社會의 학교교육은 입시중심의 지식교육이고 또한 학교 교우관계나 학교 주변의 교육 환경이 학생들의 가치의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한편 家庭에서 父母들은 家庭의 規範的 教育 보다는 자녀들의 사회적 성취를 위해 일류대학 진학을 강요하여 家庭의 건전한 價値觀 定立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매스컴의 영향으로 인한 靑少年들의 호기심을 증대시키고 각종 유해한 유흥장의 성업은 價値意識을 확일화시키면서 사회적 성취와 경제력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物質爲主의 생활태도 또한 자녀들이 올바른 價値를 형성하는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다.

한편 청년후기 즉 대학생 자녀들의 傳統文化에 대한 인식과 태도(박계홍, 1989, 26-46)에 대해 3278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대체적으로 傳統文化에 대한 바른 인식을 지니고 그 繼承方法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자세를 지니고 있었는데 우리의 傳統文化와 과거 조상들의 生活樣式에 대해서도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곧 과거의 禮節規範이 현대생활에 어떤 價値와 意義를

부여한다고 믿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황인심, 1988, 46)(전미향, 1988, 37-38) 대학생들의 家庭生活이나 價値觀은 근대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앞서의 연구와 연결시켜 볼 때 근대적인 변화를 수용하면서 傳統的인 價値의 중요성을 느끼는 이중성을 띠고 있어 청년기 자녀들의 價値觀의 혼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므로 現代社會에서의 입시위주의 교육문제, 과열경쟁, 매스컴의 잘못된 영향, 청소년 주변의 유해한 環境과 價値觀의 혼란 그리고 이를 통제할 規範的 教育의 不在 등은 오늘날 家庭規範教育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IV. 규범서에 나타난 가정규범교육의 내용과 현대적 의미

1. 내용

가정규범교육 내용은 전통사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인의 생활예절 및 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문화에서 비롯된 규범내용을 토대로 내용분석하였다. 따라서 유교문화 중심시대였던 조선조의 규범서를 근간으로 하여 그 내용을 살펴 보았다.

규범서의 내용은 식생활, 의생활규범과 언어, 인사규범, 몸가짐에 대한 생활규범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식생활규범

조선조기 昭惠王后가 쓴 內訓에는 음식을 먹을 때 지켜야 할 바가 曲禮의 예를 들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함께 먹을 때 혼자 배부르게 먹지 말며 같이 밥먹을 때 손을 비비적거리지 말며 밥을 뭉치지 말며, 밥을 마구 먹지 말며, 후북거리며 급히 들이키지 말며, 찹찹거리 소리나게 먹지 말며, 뼈를 오도독오도독 씹지 말며, 입에 넣었던 고기를 도로 그릇에 놓지 말며, 기장밥을 먹되 젓가락으로 먹지 말며, 국을 사발(국대접)에서 다시 간맞추지 말며, 이쑤시지 말며, 젓국 마시지 말아야 하니, 손님이 사발에서 다시 간맞추면 주인은 잘 끓이지

못함을 미안하다 말하고, 손님이 젓국을 마시면 주인이 가난한 탓으로 반찬이 없음을 미안하다 사과하며, 깃은 고기는 이로 베고, 마른고기는 이로 베지 말며, 구이를 한꺼번에 다 먹지 말아야 한다.]

昭惠王后, 「內訓」, 言行章 第一, 「曲禮 曰 共食 不飽 共飯 不澤手 毋搏飯 毋放飯 毋流 歎毋咤食 毋認骨 毋反魚肉 飯黍 毋以箸 毋噉羹 毋刺齒 毋歎醢客 絮羹 主人 辭不能烹 客 歎醢主人 辭以飯 濡肉 齒決 乾肉 不齒決 毋口最」

라고 하였다. 밥을 먹을 때 다른 사람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도록 하며, 예를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다.

또한 少儀에

「잔치에 이른을 사사로이 모시고 밥먹을 때는, 먼저 들고 나중에 수저를 놓으며 밥을 마음껏 떠먹지 말며, 마구 후룩후룩 마시지 말며, 조금씩 떠먹어 빨리 삼키며, 자주 씹어 찹찹대지 말아야 한다」

昭惠王后, 「內訓」, 言行章, 「少儀 曰 侍燕於君子 則先飯而後已 毋放飯 毋流歎 小飯而 噉之 歎毋爲口容」

조선조 후기 실학자 이덕무가 쓴 士小節에는 더욱 자세하게 밥을 먹을 때의 바른 자세를 조목조목 깨우치는 글이 담겨있다. 士小節 士典 服食에는

「무우나 배나 밥을 먹을 때는 자주 씹어 사각사각 소리를 내지 말고, 국수나 국이나 죽을 먹을 때는 갑자기 들이마셔 후룩후룩 소리를 내지 말고, 물을 마실 때는 목구멍 속에서 꿀꿀꿀 소리나게 하지 말라」

李德懋, 士小節 士典 服食, 「噉蕎若梨栗, 勿數嚼漱漱有聲, 喫麵若羹粥, 勿頓吸鞞鞞有響, 飲水, 勿使喉中汨汨」

하였다. 이외에도 밥을 앞에 놓고 기침하지 말고, 웃지 말고, 하품하지 말고, 밥을 다먹고 물을 마시고 난 뒤에 다시 잔 반찬을 씹지 말라는 가르침, 상추나 회를 먹을 때 자세, 콩죽, 팥죽을 먹을 때나 술을 마실 때 올바른 식사예절을 일깨워 주었다.

유성종의 문학에서 수학한 조선중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정경세(1563 : 명종 18·1633 : 인조11)의 養正篇 飲食에도 식생활 규범이 명시되어 있다.

「상에서 약간 떨어져서 너무 상에 가까이 앉지 말고, 숟가락을 들거나 지를 내낼 때에도 급히 움직이지 말고, 고기나 채소를 할부로 흠으러지게 집지 말고, 주발과 대접을 바로 놓고 주의하여서 주발이 기울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며, 밥을 손으로 막집어 먹고 흘리고 하지 말며, 음식을 씹을 때는 소리내어 씹어 먹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여 탐내어 많이 먹지 말라. 정초나 혹은 이른 명령이 없이는 술을 먹지 말며, 흑술을 먹는다 하더라도 석잔 이상은 먹지 말라」

鄭經世, 「養正篇」 飲食, 「斂身離案 毋使太逼 舉匙下筋 毋得急遽 撥亂肴蔬 安放椀椀 俱當加意照顧 毋致傾墜 毋得搏飯流噉 毋舍咀嚼有聲 亦不得恣所嗜好 貧求多食 非節候及尊長命 毋得飲酒 飲亦不過三噉」

고 경계하였다.

2) 의생활규범

의생활규범은 의복을 입는 바른 자세, 의복의 예절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禮記 學記에는

「예를 배울 때는 각종 의복을 입는 법을 알지 않으면 편안하게 예를 행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적은 예를 배우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면, 바른 학문을 즐길 수가 없다」 禮記 學記, 「不學雜服不能安禮 不能其禮不能樂學」

고 하여 옷입는 바른 예절을 습득하는 것은 나아가 학문을 하고, 禮를 행하는데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일깨웠다.

昭惠王后 內訓 言行章에서는

「더러운 것을 빨아 옷과 꾸밈이 깨끗하며……」

昭惠王后, 內訓, 言行章, 「……服飾鮮潔……」

라 하였다

게쳐서 「의복 음식 하는 도리라」에도

「……한가지 의복하야도 보암직하니 부디부디 정하고 또다시 정하게 하여 남이 웃지 말게 하라」

하였다.

禮記 內則에는

「아무리 추워도 옷을 두껍게 입지 아니하고, 가려워도 절대로 굵지 아니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옷을 벗어 붉은 살을 내놓지 아니하고, 개울을 건너지 않는 경우라면 옷의 아랫도리를 울리지 않고, 속옷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禮記 內則, 「寒不敢襲攘 不敢搔 不有敬事不敢袒裼 不涉不操 襲衣衾不見裏」

고 하였다.

한편 옷은 격에 맞게 입어야 할 것을 일깨운 바도 있다. 자기 자신의 위치나 하는 일에 알맞게 옷차림을 하여 조금이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 본 것이다.

「갓이 비록 낡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정제하려고 해야 하고, 옷이 비록 거칠더라도 그것을 모두 갖추려 해야 한다. <예기>에 말하기를, 「군자는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 단정한 용의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 한다」라고 하였고, <시경>에 이르기를 「저기 저 사람들은 그 옷이 어울리지 않는구나」라고 하였다.」

李德懋, 士小節 士典 服食, 「冠雖壞, 欲其整焉, 衣雖麤, 欲其飾焉」曰, 「君子, 恥有其服, 而無其容」詩云, 「彼其之子, 不稱其服」

위와 같은 의미로

「공복이나 군복을 버슬없는 평민이 공연히 입어보려고 해서 안된다. 이는 비록 장난으로 하는 일이지만 예의를 잃음이 심히 큰 것이다」

李德懋, 士小節 士典 服食, 「人有公服軍裝, 不可以自身, 公然試着. 比雖戲事, 失儀甚大」

라고 한 바도 있다.

擊蒙要訣 持身에는

「옷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입지 말고 다만 추위를 막을 뿐이어야 한다」

李珣, 擊蒙要訣 持身 第三, 「衣服不可華侈禦寒而已」

의생활에 있어서 평소에 검소한 생활을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는 선비들이 근검 절약하는 미덕을 생활에서 지켜나가도록 한 실생활교육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호화스런 생활을 피해야 하는 바도

小學에

「논어에 말하기를 군자는 감색(紺色)과 추색(緋色)으로 옷깃과 단을 꾸미지 않았다. 붉은 빛과 자주빛으로 사복을 만들어 입지 않았다」

小學 內篇 敬身, 「論語 曰 君子 不以紺緋飾 紅紫不以爲褻服」

고 하여 공자가 화려한 색상이나 친한 빛깔을 피하여 옷을 만들어 입은 일을 논하고 옷은 사람의 성품이나 교양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바임을 가르쳐왔다고 본다.

또한 평상시와는 달리 제사나 문상때에는 특히 그 날에 맞도록 의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다.

「곡례에 말하기를 남의 아들된 자는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관과 옷을 흰것으로 선 두르지 않는다. 아버지를 여윈 아들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은 자는 비록 喪期가 끝났어도 관과 옷을 채색으로 선두르지 않는다」

小學 內篇 敬身, 「曲禮 曰 爲人子者父母在 冠衣 不純素 孤子當室 冠衣 不純采」

하였다.

채색옷을 입어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효도로 여겨왔었으므로 아버지를 여의고 그 뒤를 이은 아들은 돌아가신 부모를 사모하는 뜻에서 감히 채색선을 두르지 못했던 것이다. 때에 맞춰 옷을 입는다는 규범도, 단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효심, 사모, 타인의 사랑과 존중의 의미가 깊이 있게 담겨져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공자는 검은 羊皮 깃옷과 검은 冠차림으로 조상하지 않았다」

小學 內篇 敬身, 「孔子 羔裘玄冠 不以吊」

喪事에는 흰빛을 위주하고 吉事에는 검은 빛을 위주하니 問喪 때에는 반드시 흰옷으로 같이입고 가는 것이 예의였으므로 공자가 검은 옷과 관차림으로 問喪하지 않은 일을 例로 들어 가르쳐준 것이다.

3) 언어 인사規範

언어생활규범은 修身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다.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의 모든 인간관계가 바로 언어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를 지키는 올바른 언어규범을 실천하므로써 그 관계를 돈독하고 신뢰감있게 맺어줄 수도 있지만, 격없고 헛된 말을 하여 쉽게 신의를 잃기도 하고 그 관계가 소원하게 되기도 한다.

繫蒙要訣에는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마음에 해로운 일이다. 고로 일이 없을 때에는 조용히 앉아 자기의 올바른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고, 사람과 내할 때에는 자기가 하는 말을 가려서 간단하게 말을 하며, 또 자기가 말할 때가 된 뒤라야 말을 한다」

李珣, 繫蒙要訣 持身 第三, 「多言多慮最害心術 無事則當靜坐存心接人則 當擇言簡重時然後言」

하였으며,

鄭經世의 養正篇에도

「무릇 아이들은 항상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며, 혹 말할 기회가 있으면 소리를 가라앉히고, 가만가만 말하여 시끄럽게 하지 말라. 말할 때는 반드시 확실한 근거에 따라서 말을 하며, 허황된 말을 해서는 안되고 자기를 자랑해서도 안된다. 사람들 험뜯거나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경솔히 말하여서도 안된다. 그래서 마치 친한 사람같이 함부로 농담을 하거나 하여 유익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鄭經世, 「養正篇」言語, 「凡童子 常宜緘口」靜默 不得輕忽出言 或有所言 必須聲氣低平 不得喧耳舌 所言之事 須真實有據 不得虛誕 不得充傲 賢人及輕議人物長短 如市井鄙俚戲謔無益之談 尤宜禁絕」

하였다.

또한 士小節에도

「말을 할 때는 재삼거리서도 안되고, 시끄럽게 해서도 안되고, 산만하게 해서도 안되고, 지체해서도 안되고, 혼동시켜서도 안되고, 중간에 끊어버려서도 안되고, 적속하고 잔인하게 해서도 안되고, 사납고 조금하게 해서도 안된다」

李德懋, 士小節 士典 言語, 「言語, 不可口尼 口南, 不可囁口秋, 不可散漫, 不可遲滯, 不可帛系 縛, 不可絕落, 不可低殘, 不可暴急」

「기쁠 때에 하는 말은 아첨하고 과장하며, 노여울 때에 하는 말은 과격하고 도리에 어그러진다」

李德懋, 士小節 士典 言語, 「喜時言, 詔而夸, 怒時言, 激而乖, 比矛盾而知之也」

「속된 말이 한번 입 밖에 나오면 선비의 행실은 그 즉시 땅에 떨어지게 된다. 속된 말은 삼가 입 밖에 내지 말라. ... 날카롭고 야박하고 가볍고 잘 달은 말이 막 입 밖에 나오려 하거든 금하 가슴 속에서 이를 억눌러서 삼가 입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라. 남의 모욕을 당하게 되고, 해로움이 또한 이에 따르는 것이니 가히 두려워 하지 않으랴?」

李德懋, 士小節 士典 言語, 「俚俗之言, 一出口, 士行, 即時墜地. 俚語慎勿出口... 尖薄輕織之語, 將欲出口, 極於胸中, 先按抑之, 慎勿透脫口外, 受人侮, 而害亦隨之, 不可不惕哉」

하였다.

이 모든 내용은 군자로서 지켜야할 올바른 언어규범으로 헛된말, 속된말, 시끄럽고 산만함, 타인의 험담, 경솔한 말은 절대 금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한편 여성으로 집안에서 언어생활에 조심하도록 경계해온 바도 각 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

內訓에는

「여자에게는 네가지 덕행이 있으니, 첫째는 아낙네의 덕이요, 둘째는 아낙네의 말씨요, 셋째는 아낙네의 몸가짐이요, 넷째는 아낙네의 숨씨이다. ...말을 가려서 하여 모진 말을 하지 않으며, 적절한 때가 된 후에야 말하여 남에게 실은 느낌을 주지 않음이 이른바 아낙네의 말씨다」
昭惠王后, 內訓, 言行章 第一, 「女有四行 一曰婦德 二曰婦言 三曰婦容 四曰婦功...擇辭而說 不道惡語 時然後言 不

厭於人 是謂婦言」

하였다.

한편 출입시에는 반드시 부모와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는 가르침도 제시되어 있다.

論語에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살아 계시거든 멀리 나가서 놀지 말 것이며, 혹시 먼 곳에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가는 곳을 알릴지이다」

論語 里仁, 「子曰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

하였다.

繫蒙要訣에도

「집을 나가거나 밖에서 돌아와서는 반드시 절한 다음 인사를 여쭙고 뵈는다」

李珣, 繫蒙要訣, 事親章, 「出入 必拜辭拜謁」

고 하였다.

이 가르침은 자신의 행동거지, 일상 인사와 출입의 예로 지켜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섬기는 도리로서도 강조된 것이다.

부인으로서 지켜야할 말조심에 대한 가르침은 사소절에

「귀를 대고 소곤거리거나, 눈길을 흘려 사투하게 보지 말라...」

李德懋, 士小節 婦儀 動止, 「母附耳細語, 流目邪呀」

하였고

송우암, 계녀서, 말씀을 조심하는 도리라에

「常談에 이르기를 新婦가 媿家에 가서 눈먹어 三年이오, 귀먹어 三年이요, 말못하여 三年이라 하니, 눈이 멀었던 말은 보고도 본체 말라는 말이요, 귀먹었다는 말은 듣고도 들은 체를 말라는 말이요, 말못한다는 말은 不緊한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이니, 삼가함이 으뜸가는 행실인 것이다. 삼가하지 아니하면 옳은 말이라도 是非와 싸움이 그칠 때가 없을 것이어든 하물며 그런 말을 할까 싶으나, 남의 흉을 말하면 자연히 원망도 나고 싸움도 나

고 욕도 나며 부모 친척이 짐승으로 보이고 노비와 이웃사람이 없으니 여기는 것이 허를 가지고 도리어 내 몸을 해롭게 하니 그런 애닦고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백가지 행실 가운데 말을 삼가하는 것이 제일가는 공부니 부디부디 삼가하여 뉘우침이 없게 하여라」

하였다.

이렇듯 여성으로서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가 파괴될지도 모르므로 남자들보다 더 언어생활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을 거듭 당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李滉의 「규동요람」에는

「어른 말씀을 깃달지 말며 내 말은 일이거든 시비말며 시키는 일이 아니거든 내다러 그결말며」

하였고

계녀서 「노비부리는 도리라」에는 노비를 부릴 때도

「종을 데리고 남의 시비하는 말을 말고 종이 온갖 말을 하거나 음란한 말을 하거든 아는체 하지 말고 오랜 후에 경계하여 꾸짖되 늘 꾸중하지 말고, 늘 나무라지 말고, 헛되이 칭찬하지 말고……」

라 하여 아무리 아랫사람이라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도록 당부하였다.

④ 몸가짐에 대한 생활규범

몸가짐에 대한 규범은 매우 많다. 각종 규범서에 서는 이를 자세히 가르쳐 준다.

李珣의 繫蒙要訣에는

「자기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수습하는데 있어 구용(九容)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구용이란 무엇인가? 발은 무겁게 놀려야 한다. 손은 공손하게 내어야 한다. 머리는 곧게 가져야 한다. 기운은 엄숙하게 가져야 한다. 서있을 때에는 엄숙하게 곳곳이 서서 덕기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얼굴빛은 항상 썩썩하게 가져야 한다」

李珣, 繫蒙要訣 持身 第三, 「收斂身心莫士刀 於九容… 所謂九容者 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容靜 頭容

直 氣容肅 立谷德 色容莊」

하였다.

즉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며,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양수거지하고 있어서 쓸데없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엇을 바라볼 때는 눈동자를 바르게 하고 옆을 흘려 보거나 결눈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입은 말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면 항상 움직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말할 때는 언제나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하고 하품이나 기침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머리는 바르게 갖고 몸은 깨끗하게 가져서 한쪽으로 기울거나 돌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생활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바로 이렇듯 상세하게 깨우쳐주는 바는 진실로 깊은 올바른 생활의 자세를 배움을 통하여 알려준 것이다.

또한 몸가짐을 바르게 해서 걸과 속이 한결같도록 하라는 가르침도 있다.

「마땅히 자기 몸을 바르게 해서 속과 겉이 한결같이 어두운 곳에 처해서도 밝은 곳에 있는 것 같고, 혼자 있어도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이 한다」

李珣, 擊蒙要訣 持身 第三, 「當正身心表裡如一處幽如顯處獨如衆」

집안에서 여자들의 몸가짐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것 같다. 여성의 규범서를 보거나 禮記 內則을 보면, 남자들의 몸가짐 보다 상세하게 지켜야 할 바가 잘 묘사되어 있다.

「부모와 시부모가 방에 계실 때는 시키실 일이 있어 부르실 때는 바로 그것을 따를 것을 삼가 답하고, 행동거지를 신중히 한다. 마루에 오르고 내릴때, 문의 출입은 항상 읊을 하고 신중하게 나가고 재채기를 하거나 하품을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한쪽 발로 걷거나 옆을 보거나 침을 뱉거나 코를 풀거나 하지 않는다」

禮記 內則, 「在父母舅姑之所 有命之 應唯敬對 進退周旋 儼 齊 升降出入揖遊 不敢嘔噎咳欠伸跛倚睞 視不敢唾洩」

하였다.

「남의 신을 밟지 말며, 남의 자리를 밟지 말며, 옷을 들고 모로 몸을 숙이고 잔걸음으로 달러가, 반드시 묻는 말에만 응답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昭惠王后, 內訓 言行章, 「母踐履 母踏席 木區衣 趨隅 必慎唯諾 ... 凡視 上於面則放 下於帶則憂 傾 則姦」

또한 士小節 士典에는

「어려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는 남과 귀에다 입을 대고 속삭이지 말것이다... 식사를 막 끝나치고 아직 밥상을 물리지 않았을 때 일어서는 것은 점잖은 행동이 아니다」

李德懋, 士小節 士典 動止, 「稱坐中, 勿與人附耳偶語... 食方 言乞未反退案 施郎起立 非雍容之象也……」

라고 하였다.

여자들의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은

「길을 걸을 때 신을 끄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을 때 먹는 소리를 내고, 치마폭을 돌려 쌀때 바람을 일으키고, 입김을 불어서 손을 덥히는 것 등이 어찌어진 부인의 단정한 거동이겠는가?」

李德懋, 士小節 婦儀 動止, 「行無履聲, 食有吃聲, 回裙生風炎, 呵口溫手, 豈令媛之端儀也」

라 하였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앉을 때는 반드시 기대앉고 오래 앉는 것을 견디어 내지 못하여 무릎을 흔들고 손을 뒤척이고 어른을 꺼려 피하는 사람과 경솔하고 교만하고 거칠고 들떠서 항상 멀리 달아나려는 사람은 좋은 인제가 아니다」

李德懋, 士小節 童規 動止, 「坐必僂依, 不耐久坐, 搖膝翻手, 厭避長者, 輕躁不淨, 恒有高飛遠走之意者, 非令器也」

라고 하여 가르쳤다.

이렇듯 바른 몸가짐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가르쳐왔던 것이 아니라 여성, 남성, 학문하는 선비에게까지도 항상 일깨워야 할바로 강조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현대적 의미

위의 家庭規範教育 내용을 고찰한 결과 조선조 규범서에 나타난 가정규범교육의 특징을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食生活規範에서는 첫째 밥을 먹을 때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오늘날은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하여 우리의 食生活 習慣이 그 영향으로 변화하였고, 국적없는 상에서 국적없는 식사방법대로 먹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인으로서의 生活文化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면 그러한 일상의 태도는 반드시 고치고 올바른 食生活規範을 바로 지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밥을 먹을 때에는 먹는 소리를 짹짹거리고 내거나 반찬을 뒤적거리지 말아야 하며, 팔을 상위에 괴고 먹는 버릇은 고쳐야 할 것이다. 또한 수저를 함께 들고 사용하거나 젓가락을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는 모습도 고쳐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를 지키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지속적인 훈계와 가르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우리 社會의 急激한 變化와 物質追求 意識이 팽배해져가는 시대 상황속에서 그러한 생활의 규범교육, 가르침은 경시되어 빛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그런 면에서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왔던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다. 家庭에서 일상의 生活規範이 바로 잡혀 있을 때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 국가의 秩序까지도 유지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각 規範書에 표시된 食生活規範, 禮節에 관한 내용은 매우 가치롭다고 여겨진다.

둘째, 좋은 음식만을 탐하지 말고, 또한 음식을 지나치게 먹지 말라는 것이다. 어른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어른이 다 잡수시기도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고 일어나는 행동은 옳지 않다. 이 가르침은 昭惠王后의 內訓, 李德懋의 士小節 등에 잘 나타나 있다.

衣生活規範에서는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바르게

입어야 한다는 것과 옷은 때와 장소에 맞게 입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옷을 청결하게 갖추어 입는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속옷과 겉옷을 바르게 갖추어 입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옛 규범서의 가르침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다. 昭惠王后 內訓과 송우암 戒女書, 禮記 內則 등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옷을 때와 장소에 맞게 입어야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는데, 평상시 입어야 할 옷차림과 경조사에 맞도록 옷차림을 달리하여 禮에 어긋남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옷은 사치스럽게 입어서는 안된다는 경계 내용도 강조되어 있다. 이이의 격몽요결이나 소학에서는 군자로서, 선비로서 바른 옷차림은 검소한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언어·인사규범의 내용도 몇가지 특징적인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바른 言語生活은 타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것이다. 말을 많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헛된 말, 속된 말, 경솔한 말, 타인의 험담 등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이의 격몽요결, 李德懋의 士小節에서는 특히 그것을 강조하였다. 최근에 속된 말, 은어, 속어, 비어를 흔히 사용하며, 의미를 알지 못할 축약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言語生活에서 주의해야 할 바다. 말을 항상 조심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둘째, 여성으로서의 말조심하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는 昭惠王后의 內訓에 잘 나타나 있는바, 女子의 四德 중 婦言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와같은 가르침은 李德懋의 士小節, 송우암의 戒女書, 이황의 著書로 전해지는 규동요람 모두에서 강조되고 있다. 여성으로서 말을 삼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부모, 친척, 이웃, 노비마저 없수이 여기게 되므로 백가지 행실 중 이를 가장 경계한 것이라 되어 있다.

셋째, 출입시에는 반드시 인사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출입시 자신의 행방을 가족, 부모에게 알리므로써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요사이 어디에 가는지를 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입

조차 모르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가정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경계해야 할 바라고 생각된다. 일상적인 모든 生活禮節은 이러한 사소한 생활자세에서 부터 비롯됨을 깨우쳐야 한다고 각 規範書에서는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몸가짐에 대한 生活規範은 첫째, 몸가짐은 바르게 하여 항상 걸과 속이 한결 같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관계없이 몸을 바르게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擊蒙要訣에는 언급되어 있다. 또한 九容을 실천하도록 깨우쳐 준다. 九容은 발, 눈, 손, 입, 머리, 얼굴빛, 서 있을 때의 자세, 말소리, 기운 등을 어떻게 가다듬어야 할지를 상세히 가르쳐준바로 매우 유용한 바른 몸가짐에 대한 훈계이다.

둘째는 타인과 같이 있을 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라는 것이다. 부인으로서 단정한 행동은 선비로서 젊잖은 행동을 하도록 사소절, 예기, 내훈 등에 기록되어 있다.

세째, 몸가짐에 대한 訓戒는 男性, 女性, 兒童 모두에게 필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훈계 내용은 특히 士小節의 士典, 婦儀, 童規 모두에 자세히 실려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위에서 논의한 朝鮮朝 規範書의 家庭規範教育 內容의 현대적 의미를 보면 매우 일상적인 생활의 예절을 상세히 일러 깨우쳐 주고 있다. 특별히 學問的으로 익혀야 할 어려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으로 기록하여 읽고 깨우치게 한 바는 군자로서, 선비로서 바른 행실을 우선 닦아야 깊은 학문을 하는 올곧은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한 지식을 쌓는 자가 선비요, 君子가 아니라 우선 行動이 바른 사람,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 生活規範을 遵守하는 龜鑑이 될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글 읽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까닭으로 생각된다. 또한 깊은 학문의 길을 권장하지는 않았던 여성에게도 기본적인 生活規範은 올바른 인간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규범서를 읽게 했던 것 같다.

또한 生活規範의 내용은 論語, 禮記, 小學, 內訓, 戒女書, 규등요람, 擊蒙要訣, 士小節 등에서 구체적

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들 規範書는 발간된 시기가 각기 다르지만 조선조 初期로부터 後期에 이르기까지 韓國人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 훈계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의 규범서 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가문에서 자손들의 계도를 위해 훈계를 담아 지도한 家訓의 내용도 生活規範을 바로 잡아 가는데 일몫을 했다고 판단된다. 가훈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 악한 것을 버리고 착한 것을 가려 처신할 것을 경계한 글이기에 어버이들의 경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生活規範教育內容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으로서 人間다운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가르쳐준 訓戒內容이며, 계속적으로 배우고 닦아야 할 價値로운 바로 여겨진다.

V. 結 論

家庭의 規範教育은 예로부터 社會의 秩序를 維持하고, 바람직한 人間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社會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傳統社會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 왔던 가정규범교육도 변화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家庭規範教育의 부재상태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家庭規範教育은 그 어느시기보다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傳統社會에서 수행되어오던 가정규범교육내용을 규범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본 결과, 日常生活의 몸가짐, 인사, 언어, 식생활 및 의생활 규범에 몇가지 특징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모든 가정규범교육은 禮의 실천과 孝의 실천, 他人에 대한 존중의식, 자기절제, 限과 格이 있는 生活의 질서유지, 삶의 규칙을 터득한다는 것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고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지켜야 할 실천적인 가정규범내용을 제시하면 식생활규범에서는 밥을 먹을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않으며 좋은 음식만을 탐하지도 음식을 지나치게 먹지도 않으며 예절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어·인사규범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경솔하고

허황된 말, 속된 말을 삼가며, 여성으로서의 말조심을 엄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의생활 규범으로는 옷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때와 장소에 맞게 사치스럽지 않도록 입는 것을 지켜나가도록 해야겠다. 몸가짐 생활규범은 九容을 지키려는 태도를 양양할 필요가 있으며 경솔하고 거칠고 교만한 행동은 절대 금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쾌감을 자아내는 행동은 삼가도록 한다. 또한 인간으로 진솔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속과 겉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실천적인 내용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하겠다.

오늘날과 같이 통제없는 자녀교육의 문제는 이러한 傳統家庭規範 教育을 통하여 새로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부끄러움을 알며, 무지를 깨달으며, 참된 人間의 삶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規範을 지켜나가는 태도를 키우는 것이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家庭規範教育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교육은 관념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안되고 實踐的이어야 한다. 실생활에서 그때 그때 일러 깨우쳐주는 산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에서의 규범교육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기초교육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에서 규범교육의 가장 큰 책임을 진 부모는 귀감이 되는 실천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밥을 먹는 태도나 인사하는 방법, 言行 모두가 家庭規範教育의 산 교육이 되며, 움직이는 교과서와 같기 때문이다.

셋째, 이와같이 父母의 모범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父母로 하여금 規範의 必要性이나 그 실천안을 습득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나, 豫備父母教育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넷째, 家庭規範教育의 책임이 家庭에서만 實踐이 아니라, 學校나 社會에서도 연계를 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 規範教育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널리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人間됨을 지향하는 教育은 일순간의 감정이나 패륜아를 질책하는 흥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

식하에, 좀더 體系的인 規範教育에 대한 研究와 教育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姜大列,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대한 비교 조사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pp.33-41.
- 2) 金亭培,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pp. 55-77.
- 3) 김정애, “중학생의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p. 37-41.
- 4) 金致敬,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청소년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평론」, 교육평론사, 1980. 4, pp. 102-104.
「論語」
- 5) 朴桂弘, “전통문화의 전승실태와 계승방안에 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5집,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89, pp.26-46.
- 6) 변시민, 「한국사회의 규범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7) 서동인, “맞벌이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서울특별시 한국가족학 연구회, 1991, pp.78-88.
「小學」
- 8) 昭惠王后, 「內訓」, 정양완역주, 학원사, 1988
- 9) 송우암, 「戒女書」
- 10) 「우리의 전통예절」,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1988.
- 11) 이길표, 「가례를 통해본 한국인의 의식구조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 12) 李德懋, 「士小節」
- 13) 이영미, 「조선조 여성의 가정교육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14) 李 珥, 「擊蒙要訣」
- 15) 李 滉, 「규동요람」
- 16) 趙春國, “청소년들의 노인관 및 가족관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 1987, pp.42-45.
- 17) 장철수,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18) 全美香, “대학생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p.37-38.
- 19) 鄭經世, 「養正篇」
- 20) 黃寅實, “대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46.